

시너지를 높였다는 평가다.
한옥마을의 외연을 넓히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축제
장소를 옮김으로써 축제장
주변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평소보다 매출액이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한지(韓紙) 또는 닥종이는 삼지닥나무·안피나
무·닥나무·뽕나무 등의 수피(樹皮)의 섬유를 뜯은 것
이며 용도에 따라 창호지, 복사지, 화선지, 태지로도
분류할 수 있다. 한지는 부채와 연, 바구니, 종이 상자
등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한지는 외국의 양지보다 훨씬
오래 간다. 한지의 우수성은 매우 많다. 닥나무 자체로
제작되므로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며 여러
겹으로 배접 하므로 견고하고 단단하다. 다양한 색지

축제장 한지물결로 체험거리 등 풍성

중국자매도시 중국 소주시 참가 이체

산업화·세계화를 선도해야할 과제 중요

음향판이나 밀폐용 개스킷 등 첨단 소재 개발에 얼마
든지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옛 문헌과 옛 유물의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나서야 할 때이
다. 한지의 우수성을 최대한 살려 수출 전략에 나서는
것도 진정한 과학 기술의 세계화라 할 것이다.

전주한지축제를 계기로 전주한지가 그 명성에 부합
되도록 이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 전주
한지의 산업화와 세계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의 쾌거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역사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주관하
는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에서 준대형연
구소로 선정됐다.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집 등 주요 한문고전을 공동으로 연구·번역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계획의 타당성,
참여 인력의 적정성, 고전 번역실 설치 운영 현황 등
을 주요 평가요소로 삼아
선정한다.

2010년 5월에 시작된 이
사업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수도권·중부권·영
남권 그리고 호남권으로
권역을 나누어 해당지역

조선시대 한문문집을 향후 30년 동안 번역할 수 있도
록 연구비와 출판비 등 일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호
남권 중형거점연구소에 선정됐던 전주대 한국고전학
연구소는 다른 권역 연구소와 치열한 경쟁 끝에 2013
년 5월1일부터 준대형연구소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
었다. 준대형연구소는 서울의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과 지방을 대표하는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

소-(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컨소시엄 2곳뿐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이외에도 '한국근현대
유학연구단', '추안급국안 원문 입력 및 DB기반 구축
사업단',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조선시대 경
상도 연안 및 도서(島嶼)관련 자료조사' 등을 수행하
고 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3년에
조선시대 심문·재판기록인 '추안급국안' 번역본
100권을 출판할 예정이다.

전주대는 한국고전번
역원에서 주관하는 '2010
년도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 번역사업'에 호남지
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
었다. 당시 이 사업은 미
번역 고전의 조기번역과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선정

해당지역 조선시대 한문문집 30년 번역

컨소시엄 호남권 중형거점연구소 선정도

지역 고전번역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국을 4대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눠 육성
했다. 전주대는 사업 선정으로 매년 2억5,000만원씩
10년 동안 지원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준대형연구소로 선정된 전주대는 고전번역
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앞으로 역사문
화콘텐츠 전공은 물론 국문학, 한문교육과 등의 경쟁
력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전북신문 www.sjbnews.com

2000년 10월 25일 창간(2000.10.23) 등록번호 전북가-0004(일간)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인/박명규 편집국장/기형서

■ 안내전화주간 : 063-230-5700 야간 : 063-230-5800 ■ 구독신청 : 230-5701 광고신청 : 230-5720~21

편집국장실 230-5810 | 경영기획실 230-5711 | 정치경제부 230-5820 | 자치행정부 230-5850 | 사진팀 230-5860 | 독자서비스부 230-5712
논설위원실 230-5724 | 편집부 230-5818 | 사회부 230-5840 | 문화교육부 230-5851 | 광고마케팅국 230-5720 | 서울본실 02-780-0328
(우)560-02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2-6 (구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4-2 현대빌딩 4층)

■ 편집국 팩스 063-231-8328 ■ 독자서비스부 팩스 063-231-8327 ■ 기사제보 063-230-5840 / www.sjbnews.com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구독료 입금

전북은행 · 506-23-0311408 / 농협 · 501017-51-050158 (예금주 : 새전북신문)

스쿨디자인(유)

- 사무용가구/파티션/
- 학교가구/의자/불박
- 전자칠판/칠판/게시
- (사이버컴퓨터보드)
- 실내 인테리어
- 기타 주문가구제작